

# 錄 取 書

녹 음 일 시	2014년 4월 16일 9시 32분 ~ 11시 59분
녹 음 장 소	해양경찰청 경비전화 녹취록(2742)
대 화 자	본문 기재
녹 취 분 량	표지 外 57쪽

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.

2016년 4월 19일

속기법인 대한

(사업자등록번호 : 264-81-30602)

속기사 林鍾憲 ㉞

(자격번호 : 06-G2-000008)

- ▶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, 장소 및 대화자,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,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▶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일부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.
- ▶ '\*\*\*'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.



◆ 녹음 순번 : #0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32분 4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총리실 안전관리과장

이항아 : 예.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총리실의 안전관리과장인데요.

이항아 : 예, 안녕하십니까?

남자 1 : 예. 지금 YTN에 진도 부근에 여객선 구조 신고가 들어왔다며요?

이항아 : 예, 맞습니다.

남자 1 : 아, 그거 상황 정리된 게 있어요?

이항아 : 지금 진행 중입니다.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,

남자 1 : 빨리 해가지고 우리 팩스번호 알고 계시죠?

이항아 : 예, 예, 알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예. 바로 좀 넣어주세요.

이항아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?

이항아 : 예.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9분 0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중앙재난대책본부

남자 1 : 예. 상황실입니다.

남자 2 : 아, 예. 고생하십니다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윤석 경감인데요.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지금 바쁘신데 죄송한데,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?

남자 1 : 아,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, 지금. 지금 여객선이 침수, 약간 기운 상태이고요. 아직까지는 침몰 위험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추정인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

남자 2 : \*\*

남자 1 : 그것까지 아직 안 나오거든요. 침수되고 있다는 연락만 받은 상태이고요. 현재 좀 파악을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.

남자 2 : \*\* 350명 \*\*

남자 1 : 예. 그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. 지금 상황 처리 때문에 정신이 없어갖고 다들 그러는 것 같습니다.

남자 2 : 아, 그래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일단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7분 4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본청 기획팀장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예. 감사합니다.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기획팀장님 계십니까?

남자 1 : 예. 나예요.

이항아 : 예. 기획팀장님 이메일 좀 들어가게 좀 해 주십시오.

남자 1 : 내가?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내가 왜, 어떻게 들어가게 해 줘?

이항아 : 동원세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.

남자 1 : 아, 실시간으로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알았어, 알았어.

이항아 : 예,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0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8분 4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

이항아 : 예.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그 여객선 ENG 카메라 좀 띄워주십시오.

이항아 : 지금 아직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 도착한 거에 300톤 이상 함정이 없어갔고요.  
지금 가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가고 있는 게 몇 함이에요?

이항아 : 지금 전 동원 함정 다 가고 있습니다, 지금.

남자 1 : 카메라 달린 것 중에 제일 빨리 도착할 만한 거.

이항아 : 지금 그렇게 말씀... 지금 현장... 바로 말씀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라서 되는 대로  
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근처에 가는 세력 중에 나오는 거 하나 연결해 주세요. 해수부로 ENG카메라 좀  
넘겨주세요.

이항아 : 예,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0분 1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남자 1

남자 1 : 예. \*\* 김 경위입니다.

이항아 : 어.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, 예.

이항아 : 어. 난데 인천 항공대 연락해가지고 챌린저 있잖아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챌린저 일단 그거 스탠바이 해 놓으라 그래라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응.





◆ 녹음 순번 : #0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1분 5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경비계장 / 콜센터 / 인천 회전익 항공대

콜센터 : 예. 해양경찰입니다.

남자 1 : 예. 인천 회전익 항공대 좀 부탁드립니다.

콜센터 : 잠시만요.

(통화연결음)

남자 2 : 예. 감사합니다. \*\*입니다.

남자 1 : 예. 본청 경비계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안녕하세요?

남자 1 : 예. 지금 인천 회전익 하나 살아 있나요?

남자 2 : 예. AW 하나하고,

남자 1 : 아, 지금 운항 AW 그걸로 여수까지 갈 수 있나요? 목포, 목포.

남자 2 : 예, 갈 수 있죠.

남자 1 : 예. 진도거든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일단은 스탠바이 하고 계십시오.

남자 2 :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 긴급출동 스탠바이 하십시오.





◆ 녹음 순번 : #0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3분 5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유기홍 의원실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유기홍 의원실인데요. 실장님 통화할 수 있습니까?

이항아 : 예. 실례지만 어디시라고요? 안 들리는데.

남자 1 : 국회입니다. 유기홍 의원실이고요.

이항아 : 국회시라고요?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예, 알겠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0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4분 1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총리실 안전관리과장 / 본청 경비계장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총리실 안전관리과장인데요.

이항아 : 예. 안녕하십니까?

남자 1 : 우리가 혹시 지원해 줄 거 있어요?

이항아 : 예. 저희가 필요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아니, 지금 바로, 바로... 해경 내에서만 지금 조치할 수가 있어요? 헬기 2대만  
가 있다며요?

이항아 : 지금 저기... 제가 판단하기 힘들어갔고요, 지금.

남자 1 : 응, 그래요. 저기 누구야, 상황실장 좀 바꿔보세요.

이항아 : 지금 통화 중이신데.

남자 1 : 그러면 그 밑에 계시는 분.

이항아 : 아니면... 잠시만요.

남자 2 : 여보세요?

남자 1 : 예. 총리실 안전관리과장인데 누구신가요?

남자 2 : 예. 경비계장입니다.

남자 1 : 아, 경비계장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지금 해경에서 헬기 2대만 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YTN에 보니까.

남자 2 : 아닙니다. 지금 배 경비함정 1척하고요. 헬기 2대, 그다음에 각종 어선들이랑 다





그쪽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. 진도 가 있고 구조 중에 있고요. 바로 인근 해군 세력들이랑 다 같이 지금 그쪽으로 전부 다 출동하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~ 해군도 요청했어요?

남자 2 : 예. 해군도 지금 8척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아~ 8척이 이동 중이고?

남자 2 : 예, 예.

남자 1 : 지금 저희가 총 15척, 지금 현재 1척은 가 있고요,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세력들이 14대 지금 현재 그쪽 이동 중에 있습니다, 지금.

남자 2 : 응. 그래요, 일단 \*\*

남자 1 :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선들도 다, 어선들도,

남자 2 : 도움이 필요하면 항시라도 얘기하세요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6분 5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경비계장 / 콜센터 / 인천 회전익 항공대

콜센터 : 예, 감사합니다.

남자 1 : 인천 회전익항공대 좀 부탁드립니다.

콜센터 : 예. 잠시만요.

(통화연결음)

남자 2 : 예. 감사합니다. 회전익항공대 \*\*입니다.

남자 1 : 예. 본청 경비계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안녕하세요?

남자 1 : 예. 지금 기상은 어떻습니까? 항공 기상?

남자 2 : 현재 여기 기상으로 \*\*

남자 1 : 예?

남자 2 : 여기 기상은 차폐고요.

남자 1 : 예, 예. 지금 뜰 수가 없어요?

남자 2 : 규정상 뜰 수가 없습니다. 목적지 기상이 괜찮다 그러면...

남자 1 : 일단은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지금 펜더랑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그러면 그쪽에 문제가 없잖습니까, 지금? 현재 우리 펜더들이 활동을 하고  
있어요.

남자 2 : 아~

남자 1 : 목포 상황 모르십니까?



남자 2 : 아니, 알고 있고요. 항공기를 일단 준비를 최대한도로 마쳐가지고 \*\* 나간 상태입니다.

남자 1 : 예. 일단은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그리고 아마 청장님이랑 타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.

남자 2 : 아, 청장님이 타고 나가실 수도 있다고요?

남자 1 : 예. 그래서 준비하란 거예요, 지금.

남자 2 : 아~ 저희가 직접 구조임무보다는 청장님이 현장 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2분 0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경비계장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남자 1 : 예. 상황실입니다.

남자 2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양수산부 상황실입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지금 278호가 영상이 안 나오는데,

남자 1 : 예?

남자 2 : 다른 배 좀 연결해 주세요, ENG카메라.

남자 1 : 아, 지금 저희들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.

남자 2 : 아, 그래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되는 거 하나 없어요? 한 대라도?

남자 1 : 예.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래서 현장을 못 보고 있습니다. 어차피 지금 278도 거기 현장을 못 갔어요, 아직.

남자 2 : 아~ 그래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그다음에 가까운 건 없어요? 278 말고.

남자 1 : 지금 현재 현장에서 구조작업 중이라 정신이 없거든요, 지금.

남자 2 : 아~ 그래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차관님 보신다 해가지고. 예, 알겠습니다.

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4분 1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경비계장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남자 1 : 예. 해경청 상황실입니다.

남자 2 : \*\*

남자 1 : 여보세요?

남자 2 : 아까 중대본 이운석 경감입니다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지금 구조하고 있습니까?

남자 1 : 예. 구조 지금 하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아~ \*\*

남자 1 : 원인은 현장에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원인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. 지금 여객선이 60도 이상 기울어가지고 거의 침몰하고 있거든요.

남자 2 : \*\*

남자 1 : 예. 지금 상황이 급해가지고 계속 지금 구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아~ 그래요?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\*\*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5분 1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경비계장 / 제주청 상황실

남자 1 : 예. 본청 경비계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제주청 상황실 정관옥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 본청도 CVMS 지금 작동이 잘 안 되는가요?

남자 1 : 다 되는데요.

남자 2 : 아, 지금 제주 쪽에 제주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주청도 마찬가지로 지금 CVMS  
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오류가 나고 있거든요.

남자 1 : CVMS가 오류가 난다고요?

남자 2 : 예. 그래가지고 유지보수업체 쪽으로 번호로 해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자리에  
없어가지고.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.

남자 1 : 예, 알았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16분 2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경비과 이강열 / 본청 경비계장

이강열 : 예. 경비계 이강열입니다.

남자 2 : 응. 강열아.

이강열 : 예.

남자 2 : 제주청에서 연락이 왔는데, CVMS가 잘 안 된다고 연락이 왔대.

이강열 : 제주청에서요?

남자 2 : 응, 제주 상황실에서.

이강열 : 예.

남자 2 : 그 업체 있잖아.

이강열 : 예.

남자 2 : 업체 빨리 수배해서 한번 알아봐라.

이강열 : 제주상황실이요?

남자 2 : 응.

이강열 : 알겠습니다. 제주청이요?

남자 2 : 응.

이강열 : 예, 알겠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1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2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278호정 지금 안 나오던데.

이항아 :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 위치가.

이항아 : 지금 저희도 P정들이 도착하기는 했는데 지금 그게 화면을 전송할 수 있는 그게 없어갔고요. 지금 300톤, 200톤 함정들이 아직 현장에 도착 못 했습니다.

남자 1 : 아니, 도착 안 해도 카메라 나오는 거 일단 연결해 줘요.

이항아 : 그러니까 카메라가 나오는 게 저희들도 지금 현장 화면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현재 몇 척 도착했어요, 세력은?

이항아 :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항공기 지금 4대 정도 도착한 것 같고,

남자 1 : 헬기 4대.

이항아 : 예. 그다음에 지금 P정 1척 지금 도착... 100톤급, 100톤급 지금 도착하고요.

남자 1 : 그건 필요 없고 몇 척 도착하고 있고,

이항아 :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. 뒤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

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그러면 현재 사망자 있어요, 없어요?

이항아 : 그것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. 계속 지금 구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헬기랑 100톤급 해서 구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. 계속 지금 구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

남자 1 : 아, 그래요? 아, 예, 잘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1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2분 2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경비계장 / 콜센터 / 인천 회전익 항공대

콜센터 : 예, 감사합니다.

남자 1 : 예. 인천 항공대 좀 부탁드립니다. 인천 회전익 항공대요.

콜센터 : 예. 잠시만요.

(통화연결음)

남자 2 : 예. 감사합니다. 회전익항공대 \*\*입니다.

남자 1 : 예. 본청 경비계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AW 다 준비됐죠?

남자 2 : A,

남자 1 : 헬기, 헬기, 헬기.

남자 2 : 아니, 아니, 지금 혼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저희 항공과에서는 또 이래이래 하라고 말씀,

남자 1 : 아니, 항공기 운영은 경비계 소관이지 않습니까?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일단 AW 준비 됐습니까, 안 됐습니까?

남자 2 : 아니, AW도 그렇고 SW도 그렇고 준비는 돼 있습니다.

남자 1 : 준비는 돼 있죠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청장님이 금방 그쪽으로 출발하실지 모르니까요. 여보세요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확실하게 준비해 놓고 스탠바이하고 계십시오. 청장님 금방 출발하실 것 같아요.

남자 2 :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전화 통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?

남자 1 : 예.

남자 3 : 예. 최 주임입니다.

남자 1 : 예. 본청 경비계장입니다.

남자 3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AW 준비되셨죠?

남자 3 : AW는 아니고요. 지금 92를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.

남자 1 : S92로요?

남자 3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청장님이 이동하실 거거든요.

남자 3 : 청장님은 여기서 김포까지는 못 넘어갈 기상입니다.

남자 1 : 아니요. 김포가 아니고요. AW로 가시겠다고요. 헬기로.

남자 3 : 헬기로 현장에 가시겠다고?

남자 1 : 예.

남자 3 : 비행기로 안 가시고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3 : 아, 그러면 청장님도 92에 타고... 아니, 현장에 92도 출동하고 AW도 가야 된다 이거죠?

남자 1 : 지금 현지에 있는 헬기들을 다 출동시키고 있거든요, 전국에 있는 것들을 지금.



남자 3 : 아, 그러면 이쪽에 한 대도 없이 그냥 전부 그쪽으로 출동하라 이거죠?

남자 1 : 일단은 준비는 해 놓으시라고요.

남자 3 : 준비는요.

남자 1 : 준비는 다 됐죠, 청장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?

남자 3 : 아니요. 이제, 저희들 이제 연락 받은 겁니다.

남자 1 : 아까 내가 다 연락을 했었는데, AW 준비하라고 아까 연락했잖아요.

남자 3 : 아니요. 그거는 여기서 김포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.

남자 1 : 아니요. 김포가 아니라 현장 간다 그랬죠. 일단은 빨리 준비하세요, 빨리. 청장님 금방 출발하실지 모르거든요.

남자 3 : 아, 그러면 본청장님이 여기서 AW를 타시고 현장으로 직접 가시겠다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3 : 예. 일단은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3 : 예,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7분 1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경비계장 / 콜센터 / 인천 회전익 항공대

콜센터 : 해양경찰입니다.

남자 1 : 인천 회전익항공대 좀 부탁드립니다.

(전화연결음)

남자 2 : 예. 송 주임입니다.

남자 1 : 예. 본청 경비계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S92기는 안 가는 걸로 했다고 그러니까요, AW만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 청장님이 타고 가실 겁니다.

남자 2 : 청장님이 가시는 거요?

남자 1 : 예. 청장님이 타고 바로 진도까지 가실 겁니다.

남자 2 : 진도까지 가서 임무는 수행을 많이는 못 해요. 왜냐면 기름 때문에 거기 가서  
현장 한번 보시고 바로 목포 가가지고 기름 넣고 다시 임무수행 할게요.

남자 1 : 예. 그거는 현장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남자 2 : 예, 예,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, 청장님한테.

남자 1 : 예,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1분 0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완도 상황실

남자 2 : 예. 완도 상황실입니다.

이항아 : 예. 여기 본청 상황실입니다.

남자 2 : 예.

이항아 : 지금 P57 비디오 컨퍼런스 현장 도착 전에 빨리 작동하라고 좀 지도해 주세요.

남자 2 : 어떤 거요?

이항아 : 비디오 컨퍼런스.

남자 2 : 비디오요?

이항아 : 예, 비디오 컨퍼런스. 현장 그 화면 전송하는 거 있잖아요, 맨날 연습하는 거.

남자 2 : 예.

이항아 : 지금 한 15분 되면 도착하겠네요, 보니까요. 빨리 지금 전송하세요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 청장님 지시사항입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

◆ 녹음 순번 : #1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1분 4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YTN 기자

이항아 : 예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여자 1 : 수고 많으십니다. 진도 여객선 침몰 때문에 전화 드렸는데요. YTN 사회부 이영은 기자입니다

이항아 : 예, 안녕하십니까?

여자 1 :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? 바다로 빠진 학생이나 이런 게 있는 거예요?

이항아 : 지금 그거 관련해갖고 제가 여기 지금 저희 담당실장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
여자 1 : 아, 예, 예.

이항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2분 4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YTN 기자

이항아 : 예. 감사합니다. 상황실,

여자 1 : 예. 조금 전에 드렸던 YTN 이영은 기자인데요.

이항아 : 예. 잠시만요. 저희 홍보실로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
여자 1 : 아, 예.

이항아 : 잠시만요. 도중에 끊겨서 죄송합니다.

여자 1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3분 0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남자 1 : 예. 해경청 상황실입니다.

남자 2 : 예. 중대본의 이윤석 경감입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바쁘신데 자꾸 전화 드려서 죄송한데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반장님, 혹시 지금 구조는 계속 이뤄지고 있잖아요.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지금 구조 뉴스에서는 190명 구조했다는데 맞나요?

남자 1 : 지금 완벽하게 집계는 안 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, 지금.

남자 2 : 아, 190명 정도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생각보다 빨리 되고 있네요, 그러니까. 헬기로 얼마 못 찾을 텐데.

남자 1 : 예. 바로 헬기가 현장에 3대가 가 있고요. 지금 저희도 배가 하나 바로 사고 나  
자마자 바로 얼마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.

남자 2 : 아, 배가요?

남자 1 : 예. 배 1척이 도착해 있고 지금 주변에 어선들이랑 저희들이 다 동원해 있거든  
요, 지금. 그래서 다 집계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.

남자 2 : 아~ 반장님, 그런데 그 구조해서요. 어디로 후송하나요, 혹시?

남자 1 : 아, 지금 각각 장소가 틀려가지고요. 헬기는 거차도 쪽에 있는,



남자 2 : 잠깐만요, 제가 좀 적을게요. 헬기는?

남자 1 : 예. 거차도 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고요.

남자 2 : 거차도?

남자 1 : 예. 서거차도라고 거차도라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거차도가 그냥 섬인가요?

남자 1 : 예, 섬입니다, 섬.

남자 2 : 이 지역이 어디인가요? \*\*

남자 1 : 진도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.

남자 2 : 진도 남쪽에 있는 섬이요?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 또요?

남자 1 : 예. 그리고 나머지 배에 싣고 있죠, 지금 다.

남자 2 : 배에는 그냥 현재 싣고 있는 상태고요.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아... 잠깐만. 그러면 아직 거차도 가가지고 어디로 이송한다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고요?

남자 1 : 예. 현재 거차도에 있는 사람도 임시로 거기다 갖다놓은 거죠. 나중에 다 다시 옮겨야 됩니다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 감사합니다.



◆ 녹음 순번 : #2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6분 2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이항아 :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이항아 : 예. 지금 아직도 현장 도착한 영상 아직 없습니다, 지금.

남자 1 : 다른 거 가고 있는 배도,

이항아 : 지금 P57정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 도착하면 제가 바로 전송,

남자 1 : P57에는 카메라 없잖아요.

이항아 : 소형정 있는데 거기 ENG는 연결 안 된 것 같은데요. 저희 쪽에는 있는데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. 대형함정에 전송할 수 있는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가고 있는 것 중에 카메라 있는 거 있잖아요.

이항아 : 가고 있는 게 카메라 있는 게 P57정인데요, 소형정인데 저희 쪽만 전송이 되는  
걸로 알고 있는데요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해수부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

남자 1 : 278은 왜 안 나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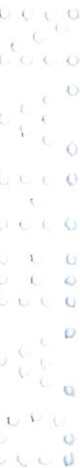
이항아 : 278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.

남자 1 : 도착 안 해도 넘겨주세요, 나오는 거 있으면.

이항아 : 예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 아, 그리고... 여보세요?

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2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7분 2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현재 구조 진행상황은 어때요? 몇 명 구조에, 상황,

이항아 : 앞쪽에서 제가 전 화 받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... 저는 파악해  
서, 지금 파악해서 보고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옵니다, 저 같은  
경우에는.

남자 1 : 혹시 이 배가 항로 따라다니고 있는, 원래 항로를 준수하던 건가요? 아니면,

이항아 :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제가...

남자 1 : 그래요?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항로 암초가 있는 구역이에요, 거기가?

이항아 :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어서  
죄송합니다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현재 사망자 있어요?

이항아 : 아직 올라온 건 없습니다.

남자 1 : 없어요?



이항아 : 예. 아직 올라온 건 없습니다.

남자 1 : 그리고 지금 물에 뛰어내렸다고 하던데.

이항아 :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몇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..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, 죄송합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8분 3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완도 상황실

남자 1 : 예. 완도 상황실입니다.

이항아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상황실 이 경장입니다. P57정 비디오 컨퍼런스 작동 안  
됩니까?

남자 1 : 아,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요.

이항아 : 지금 빨리 올라와야 되는데, 현장 도착 전에 켜야 되는데 청장님하고 지금 보셔  
야 된다고 지금 다 \*\*

남자 1 : 예. 지시 다 내렸습니다.

이항아 : 다시 한 번 빨리 체크해 주세요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9분 3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일반인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여보세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예. 지금 수학여행단... 여보세요?

이항아 : 예. 말씀하십시오.

남자 1 : 예.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타고 가는 여객선 조난사고 지금 사고처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.

이항아 : 아, 실례지만 어디십니까?

남자 1 : 저희 학생이 거기 타고 있어요.

이항아 : 그러면 저희가 홍보팀으로 전화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저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.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. 전화를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

남자 1 : 다른 데로 연결해 주신다고요? 어디죠?

이항아 : 예. 여기 상황실입니다.

남자 1 : 예. 어디로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?

이항아 : 홍보실로 제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홍보실이요?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인천 해경 홍보실?



이항아 : 예. 본청 홍보실입니다. 해경청 본청 홍보실입니다.

남자 1 : 해경 본청 홍보실.

이항아 : 예.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전화가 도중에 끊기면요, 031-835-2112로  
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2112요?

이항아 : 예, 예.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5분 1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. 수고하십니다. 수색구조과장님 계세요?

이항아 : 지금 회의실에 들어가셨습니다.

남자 1 : 회의실로요?

이항아 : 예. 278은 저희가 전송하라고 연락을 했습니다.

남자 1 : 278?

이항아 : 예, 예. 278 전송하라고 연락은 했습니다.

남자 1 : 아, 예. 그리고 회의실 전화번호는 없어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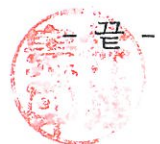
이항아 : 잠시만요. 회의실 전화는 3440입니다.

남자 1 : 3440?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7분 5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완도 상황실

남자 1 : 예. 완도 상황실입니다.

이항아 : 예. 완도가 지금 권한 다 있습니까?

남자 1 : 예?

이항아 : 완도가 방장이십니까?

남자 1 : 방장이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?

이항아 : 아니, 비디오 컨퍼런스 방장입니까?

남자 1 : 아,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, P57이.

이항아 : 아니, 그러니까 지금 회의실 개설한 게 어디입니까, 지금?

남자 1 : 무슨 말씀입니까?

이항아 : 비디오 컨퍼런스 회의실 개설한 데가, 방을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, 지금? 완도  
아닙니까?

남자 1 : 잠깐만요. 그럼 그거 가동을 중지합니까?

이항아 : 아니, 나머지 빼고, 전부 다 빼버리고 개설한 데만, 57정만 현장 도착한 것만 전  
송하면 되는데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화면이 끊기잖아요.

남자 1 : 예. 지금 하도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,

이항아 :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. 지금 현장 도착한 거 청장님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지  
금.



남자 1 : 예. 그러면 그거 준비하겠습니다.

이항아 : 다른 데... 아니, 준비하는 게 아니고, 필요 없는 사람 다 빼버리고 본청하고 57  
정하고 방 개설한 데만 해 주십시오.

남자 1 : 아, 57하고,

이항아 : 지금 그거 완도에서 개설한 거죠? 완도 상황실로 개설돼 있는 것 같은데, 나머  
지 다 강제퇴장 시키고요. 인원 조절해 주십시오, 그렇게 해 갖고.

남자 1 : 그러면 뭐,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? P57하고,

이항아 : P57하고 서해지방청하고 완도하고 놔두고 현장 도착하는 거 세력 빨리 도착한  
것만 놔두고 나머지 다 강제조치 시켜 주십시오.

남자 1 : 예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 지시사항입니다, 이게.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6분 0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SBS 기자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바쁘시죠? SBS 노동규 기자인데요.

이항아 : 예. 수고하십니다.

남자 1 : 예. 고생이 많으십니다. 경비작전과장님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?

이항아 :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지금 경비작전과장님께서 지금 회의실에 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.

남자 1 : 아, 그러니까요. 저희도 그냥 핫라인만 갖춰놓으려고요.

이항아 : 아, 그러십니까?

남자 1 : 예. 번호,

이항아 : 알겠습니다. 031에 835예요.

남자 1 : 아니, 개인번호 없나요, 개인번호?

이항아 : 개인번호요?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잠시만요. 010-4328-6127입니다.

남자 1 : 존함이 어떻게 되시나요?

이항아 : 여인태 과장님이십니다.

남자 1 : 여인택이요, 태요?

이항아 : 여인태입니다. 여, 인자, 태자입니다, 태극기 할 때 태.



남자 1 : 여인태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, 구조작업은요?

이항아 : 저희도 이제... 제가 상황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,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, 홍보팀으로 바로 전화 연결해 드려도 되겠습니까?

남자 1 : 아니요. 구조는 몇 명이나 한 거예요, 그러면 지금까지?

이항아 :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, 정확하게 파악되는 게 없는 상황이라서, 제가요.

남자 1 : 지금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?

이항아 :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뒤쪽에서 다 분할돼갔고요.

남자 1 : 아, 목포 해경 상황실은 어떻게 돼요, 번호가?

이항아 : 그러면 목포 해경 상황실 잠시만요. 죄송하지만 그게 저희가 상황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대변인실에 연결해 드려 갖고 거기서 좀 대응하면 안 되겠습니까?

남자 1 : 아, 목포해경 상황실 번호만 알려주세요, 그러면.

이항아 : 061-241-2042입니다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몇 명 구조했는지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. 몇 명 구조 하셨는지 지금까지는.

이항아 : 잠시만요. (옆 사람과 대화 후)

지금 현재 제 쪽에서 파악된 건 133명 구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, 지금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고맙습니다.

이항아 : 예. 수고하십시오.



- ◆ 녹음 순번 : #28
- 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9분 41초
- 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IT관제센터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IT관제센터입니다.

이항아 : 예, 278정 ENG 좀 조치해 주세요. 지금 청장님,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



- ◆ 녹음 순번 : #29
- 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4분 34초
- 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IT관제센터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IT관제센터입니다.

이항아 : 예. 본청 상황실 이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지금 ENG카메라 상황실 자체 방이 안 되는데,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.

남자 1 : 여기 완도 278함 여기서도 지금 화면이 올라오는데, 그쪽이... 제가 지금 저도 여기 근무자가 아니고 임시로 와 있거든요.

이항아 : 일단 어떻게 하든가 수단, 방법 가리지 말고 해 주세요, 일단.

남자 1 : 아, 예, 전할게요, 그렇게.

이항아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9분 3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구정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구정현 : 예. 상황실 구정현 경사입니다.

남자 2 : 아, 예. 고생이 많으십니다. 중대본 이윤석 경감인데요.

구정현 : 예, 안녕하십니까?

남자 2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학생들 \*\*

구정현 : 예?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?

남자 2 : 학생들 지금 다 구조됐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오는데 확인 된 건가요?

구정현 : 아니요. 지금 제가 상황실 근무자 대신해서 전화 받아서 확인 한번 해 보고 연락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

남자 2 : \*\*

구정현 : 몇 번으로 연락드리면 됩니까?

남자 2 : 02-2100-5507입니다.

구정현 : 5507이요?

남자 2 : 예, 예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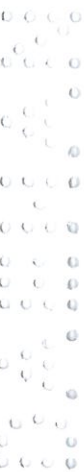
그다음에 그 사고 원인이 암초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있고 다른 선박에 부딪혔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나오네요.

구정현 : 아, 그 부분하고 그러면 학생 구조 현황하고 제가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.

남자 2 : 그것만 확인 부탁드립니다.

구정현 : 예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0분 1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안전행정부 상황실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여기 안행부 상황실 백창현입니다.

이항아 : 예, 안녕하십니까?

남자 1 : 예. 지금 어떻게, 구조는 다 완료된 건가요?

이항아 : 지금... 예. 구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남자 1 : 계속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구조 인원이 몇 명이에요?

이항아 : 잠시만요.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,

남자 1 : 빨리 바꿔주세요, 그러면.

이항아 : 예. 잠시만요.

(전화 끊김)



◆ 녹음 순번 : #3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5분 5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이항아 : 예. ENG 처리해 드렸는데.

남자 1 : 아, 잘 나오고 있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보고 있습니다. 진행상황은 어때요?

이항아 : 진행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,

남자 1 : 관건이, 관건이 배가 뒤집혔는데 저 안에 사람이 있냐, 없냐 그게 문제예요.

이항아 : 예.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정확하게 인원이 안 나온 상황이라서요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. 죄송합니다,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 갖고.

남자 1 : 예. 지금 잠수 다이버들 들어가나요?

이항아 : 예. 당연히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해야 될 상황이라서... 정확하게 제가 말씀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.

남자 1 : 다이버는 언제쯤...

이항아 : 그걸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일단 그 다이버들은 갔죠?



이항아 : 예, 다 출동했습니다. 동원 가능한 전부 다 출동했습니다.

남자 1 : 그러면 그 안에 인원 확인하는 거예요?

이항아 : 예. 지금 현장 도착한 거랑 해서 지금 조치해서... 조금 뒤에 전화 주시면 안 되  
겠습니까?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,

남자 1 : 아,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. 다이버는 몇 시에 도착했어요?

이항아 : 지금 그게 저희가 현장 도착해서 확인된 게 없는 상황이라서요. 정확하게 지금  
말씀 못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아, 그래요.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7분 2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서해청 상황실

남자 1 : 예. 상황실입니다.

이항아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상황실입니다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122구조대 현장 출동했지요?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도착했습니까?

남자 1 : 지금 P정 편승해갖고 가고 있는데.

이항아 : 몇 정입니까?

남자 1 : 87정하고,

이항아 : 87이요?

남자 1 : 87하고 56하고 나눠 댔습니다. 87정에 5명.

이항아 : 87 5명,

남자 1 : 56 2명.

이항아 : 56 2명, 총 7명이네요.

남자 1 : 예, 예.

이항아 : 일단 알겠습니다. 예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9분 2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지금 구조 상황이 어때요?

이항아 : 지금 아직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출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

남자 1 : 특공대 말이죠?

이항아 : 예, 예. 특공대 지금 잠수하려고... 아직 현장은 도착은 안 했습니다.

남자 1 : 몇 시쯤 도착할까요?

이항아 : 지금 정확하게...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..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지금 구조된 인원하고 사망자 혹시 나온 거 있어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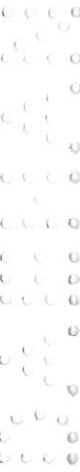
이항아 :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모르겠습니다,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인지.

남자 1 : 아... 지금 배가 뒤집어져 있는데 저 안에 학생들 남아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?

이항아 :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,

남자 1 : 배 들어가 봐야 알죠?

이항아 : 예. 들어가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.



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아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공식 구조한 건 148명 맞습니까?

이항아 : 지금,

남자 1 : 어선 빼고, 어선에서 구조한 거 빼고.

이항아 :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

이항아 : 현재 지금 구조한 거 161명입니다.

남자 1 : 해경?

이항아 : 예, 해경에서 구조. 예.

남자 1 : 아~ 예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1분 1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완도 상황실

남자 1 : 예. 감사합니다. 완도 상황실입니다.

이항아 : 예. 수고하십니다. 122구조대 ETA 언제입니까?

남자 1 : 여보세요?

이항아 : 예. 본청 상황실입니다.

남자 1 : 예. 안녕하십니까?

이항아 : 예. 122구조대, 완도 122구조대 ETA 언제입니까?

남자 1 : 예. 잠시만요. 여보세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예. 11시 45분입니다.

이항아 : 11시 45분이요? 알았습니다. 7명이죠?

남자 1 : P87... 예, 맞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5분 4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구조항공대

남자 1 : 예. 상황실의 신 계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안녕하십니까? 구조항공대 이주호 경위입니다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지금 무안으로 안 가고요, 제주로 간다고 하는데요.

남자 1 : 제주로요?

남자 2 : 예. 1시간 뒤에 현장에서 이탈한다고 합니다.

남자 1 : 몇 시에 제주 도착입니까?

남자 2 : 1시입니다.

남자 1 : 1시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아, 알겠습니다.





◆ 녹음 순번 : #3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6분 1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

이항아 : 예.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무슨, 무슨 병원이에요? 후송 병원이.

이항아 : 아, 그거 제가 모르겠습니다, 정확하게.

남자 1 : 지금 누구 옆에 아는 사람 없어요?

이항아 : 지금 그러면... 잠깐만요. 아, 지금 다 파악하고 계셔갔고요. 죄송합니다, 저희가.

보고서 나갈 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? 저희가 지금,

남자 1 : 아니, 어느 병원, 어느 병원 가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?

이항아 : 잠깐만요.

지금 보고 올라온 거 없습니다.

남자 1 : 아니, 세력은 몇 척이에요, 그러면? 함정 20,

이항아 : 잠시만요. 제가... 함정 지금 저희가 파악...

남자 1 : 해경 몇 척, 해군 몇 척, 어선 몇 척 이렇게 안 나와요? 행정선 몇 척.

이항아 : 계속 지금 수시로 추가돼갔고요.

남자 1 : 아, 현재, 현재 스코어로요. 예.

이항아 : 해경,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해경 36척, 해군 15척, 기타 지금 1척인데 어선은 정확하게,

남자 1 : 헬기, 헬기.

이항아 : 헬기는 지금 총 6대로 파악하고 있는,

남자 1 : 어선은 러프하게.





이항아 : 어선은 지금 파악 안 되고요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러프하게도 안 돼요?

이항아 : 예, 예.

남자 1 : 예. 그리고 병원 잠시 알아줘요. 기다릴게.

이항아 : 병원은 지금 올라온 게 없습니다.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, 파악되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여보세요?

이항아 : 병원 파악되는 대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공군 수송기는 몇 대예요, 공군기는?

이항아 :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저희가 전화상으로 파악되기가 힘듭니다. 죄송합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3분 1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이항아 : 예.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아, 아까 전화 전에 드렸었던 중대본 \*\*

이항아 : 잘 안 들립니다.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.

남자 1 : 예. 아까 전에 전화 드렸었는데 중대본 이윤석 경장입니다.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지금 사망자... 구조자가 161명으로 발표했는데 맞나요, 그게? \*\*

이항아 :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러면 홍보팀으로 전화 연결해 드려도 되겠습니까?

남자 1 : 홍보팀이요?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사고 원인도 아까 언론에서는 다른 선박하고 부딪혔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파악 안 됩니까?

이항아 :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,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희 홍보 쪽으로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032-835-2112입니다. 제가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전화 연결 끊기면 그 쪽으로 연락해 주십시오.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3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4분 1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이항아 / 해양수산부

이항아 : 예, 감사합니다. 상황실 이항아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, 구조대 들어갔습니까?

이항아 : 구조대... 잠시만요. 지금 도착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... 제가 파악해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이항아 : 예.

남자 1 : 사망자는 없죠?

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4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9분 57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서해청 상황실

남자 1 : 예. 감사합니다.

남자 2 : 예. 저 신 경감인데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아까 13시에 도착했다고 했죠, CN235호가?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도착하면 헬기로 이동을 하세요. 헬기 한 대 빼든지 해가지고.

남자 1 : 그러니까 그거를 본청에서 지시를 내려주면 됩니다.

남자 2 : 그렇게 하시라니까요.

남자 1 : 아, 헬기를요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헬기를 까모프를 해야 됩니까? 아니면,

남자 2 : 까모프로 하든 펜더로 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십시오.

남자 1 : 예, 일단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 그리고 일단 공항으로 연락을 해서 비행기 도착하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조치하면 되겠어요.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예.

